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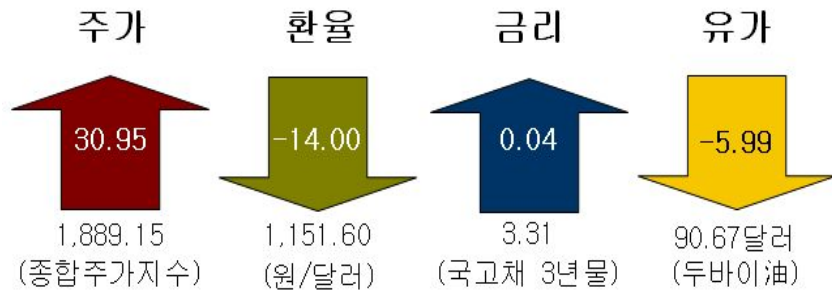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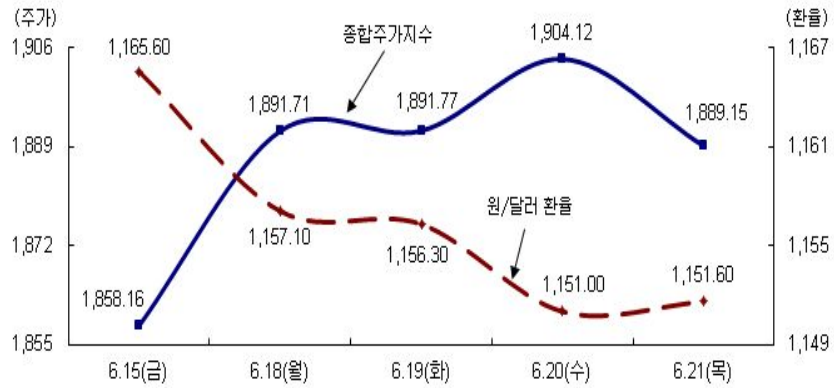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다
- 인구 5,000만 시대와 인구보너스 소멸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6.15~6.2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다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집필 : 이 준 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Executive Summary

□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다

- 인구 5,000만 시대와 인구보너스 소멸

■ 20-50클럽 가입

한국은 6월 23일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였다. 1인당 GDP 20,000 달러,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급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 인구 5,000만 돌파와 인구보너스 소멸

(인구보너스의 향유 : 1966~2012) 1966부터 2012년까지 한국은 인구보너스, 즉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향유하였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19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1970~1989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4.9%(1970)에서 68.6%(1989)로 급등하면서 실질GDP 증가율이 연평균 9.3%를 기록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구보너스 소멸 : 2013년~) 하지만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2년 73.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20~2039년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1.1%에서 57.0%로 급락하고, 잠재성장률도 2030년대에는 1.7%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의 40대에서 2028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고점을 지나 급락할 때 부동산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동산버블이 붕괴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일본과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모두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을 지나면서 자산수요 급감으로 부동산버블이 붕괴되고 금융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악화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발생의 토양을 제공할 수는 있다.

■ 인구보너스 20 시대의 준비 과제

(인구보너스 2.0 시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는 2013년부터는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를 연장시키는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준비 과제) 첫째, 고령인구와 여성, 청년 등 취업애로계층의 고용률을 높여 실업문제와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둘째, 외국 인력과 북한 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출산장려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생산가능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시행하되 장기적 시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20-50클럽 가입

20-50클럽 가입	<p>한국,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 가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수준과 인구규모 양 측면에서 선진국 도약의 발판 마련 <p>인구구조 악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급락하면서 성장잠재력 훼손
---------------	---

인구 5,000만 돌파와 인구보너스 소멸

인구보너스 향유 (1966~2012)	<p>생산가능인구 비중 상승으로 높은 경제성장률 향유 (1966~20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인구 비중 : 53.0%(1966) → 73.1%(2012) · 실질GDP 증가율 : 연평균 7.2%(1970~2011) <p>특히 베이비부머(55~74년생)의 생산가능인구 진입으로 인구보너스 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인구 비중 : 54.9%(1970) → 68.6%(1989) · 실질GDP 증가율 : 연평균 9.3%(1970~1989)
인구보너스 소멸 (2013년~)	<p>생산가능인구 비중 급락으로 잠재성장률 훼손 (201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인구 비중 : 73.1%(2012) → 49.7%(2060) · 잠재성장률 : 4%대(2001~2009) → 1%대(2031~2040) <p>생산주력세대, 현재의 40대에서 2028년 60대 이상으로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 30대(1990) → 40대(2004) → 50대(2023) → 60대 이상(2028) <p>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정점에 달했을 때 금융위기 가능성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가능인구 정점 : 일본(1990), 미국·스페인·아일랜드(2005) · 금융위기 발생 : 일본(1990), 미국(2008), 스페인(2008,2012), 아일랜드(2010)

인구보너스 2.0 시대의 준비 과제

인구보너스 2.0 시대	고용률을 높여 인구보너스를 연장하는 인구보너스 2.0시대 '준비'
준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령층, 여성, 청년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대책 ② 외국 인력 및 북한 인력 활용 방안 모색 ③ 출산장려책 지속 추진 ④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준칙 마련 및 준수

I. 20-50클럽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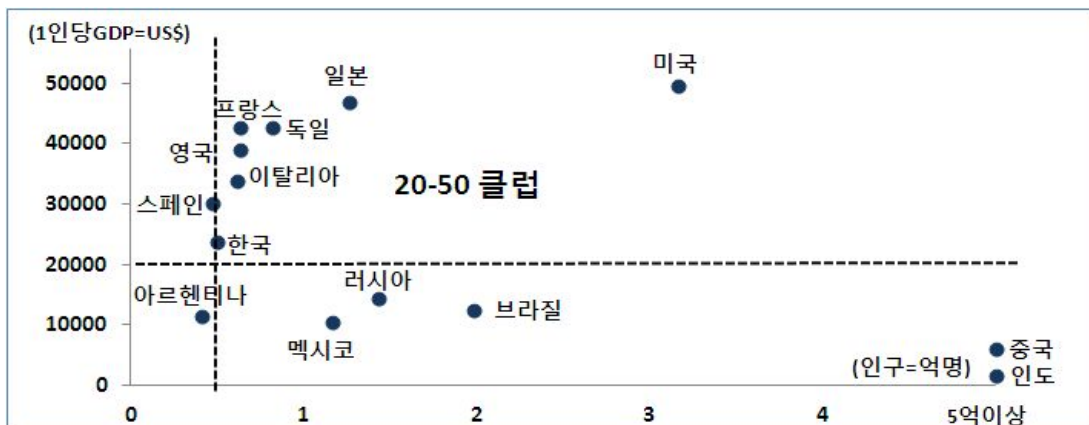
○ 한국은 오는 6월 23일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면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

- 1인당 GDP 20,000 달러와 인구규모 5,000만 명을 의미하는 20-50클럽은 경제 수준과 인구규모 양 측면에서 선진국 도약의 가능성이 커짐을 뜻함
 - 지금까지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6개국밖에 없음
- 향후 몇 년 내에는 20-50클럽에 가입할 국가가 없을 전망
 -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는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나, 1인당 GDP가 20,000 달러를 넘어서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전망
 - 스페인은 1인당 GDP가 20,000 달러를 상회하나, 2031년에나 인구 5,0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추계
- 한국에 앞서 20-50클럽에 가입한 6개국의 1인당 GDP가 지속적으로 상승
 - 2009년 기준 1인당 GDP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는 4만 달러를 넘어섰고, 영국, 이탈리아도 3만 달러를 상회

○ 하지만 한국은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

- 한국은 인구구조 악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야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 가능

<20-50클럽 현황>



자료 : UN, IMF

주 : 2012년 기준. 1인당 GDP는 IMF 전망치를, 인구규모는 UN 및 통계청 추계치를 사용

II. 인구 5,000만 돌파와 인구보너스 소멸

1. 한국의 인구 추이

○ 한국의 인구는 1984년 4,000만 명을 넘어 2012년 5,000만 명을 돌파하고, 203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할 전망

- 1967년 3,013만 명에서 1984년 4,041만 명, 2010년 4,914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6월 23일에는 5,000만 명을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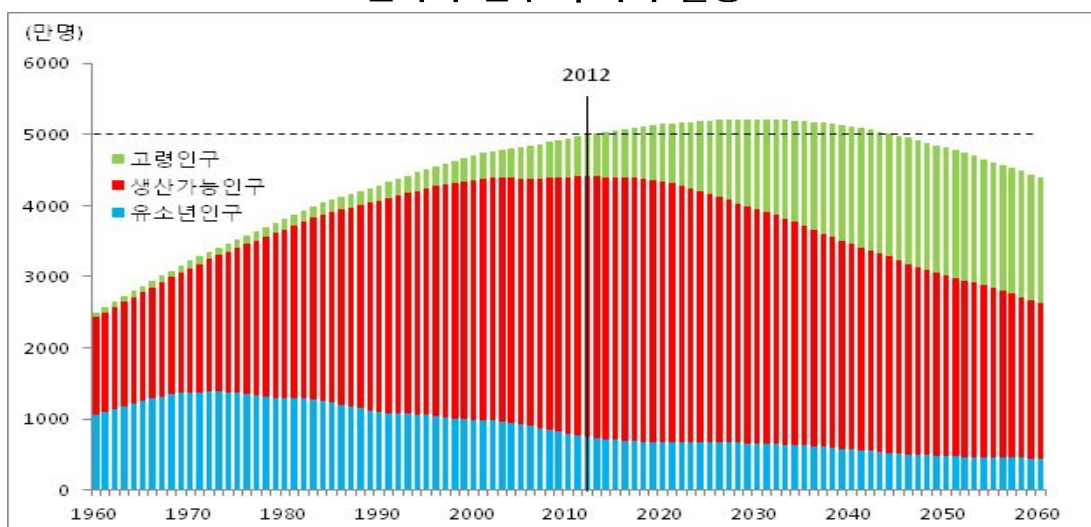
- **미래 인구 추정의 기본 가정** : 미래 인구규모는 출산률과 사망률, 국제이동 추이에 영향을 받음

- 합계출산률¹⁾ :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증가한 후 유지
- 기대수명 : 2010년 남자 77.2세, 여자 84.1세에서 2060년 각각 86.6세, 90.3세
- 인구유입 : 2010년 인구 천명 당 1.67명에서 감소하기 시작. 2060년 0.53명

- **미래 인구** : 2030년 5,216만 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후 2060년 4,396만 명으로 감소하고, 인구구조는 급격히 악화

- 인구에 따른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2년 73.1%에서 2060년 49.7%로 급락하면서 경제 활력 약화

<한국의 인구 추이와 전망>



자료 : 통계청

1) 가임여성(15~49세)의 평균 출산률

2. 인구보너스 향유

○ (정의)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현상

- 고령인구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출산제한정책을 펼칠 경우, 약 15~20년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커지고 총부양비($\frac{\text{유소년인구} + \text{고령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가 하락하면서 인구보너스 효과가 극대화
 - 출산제한정책이 시행되기 직전에 태어난 상당규모의 0~14세(베이비부머)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
 - 반면 출산제한정책으로 유소년이 줄어들면서 부양인구(유소년인구) 감소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할 경우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
 - 생산가능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공급이 늘어나면서 경제의 양적 성장 촉진
 - 핵심 저축계층인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총저축률이 상승하고 투자 촉진
 - 핵심 소비계층인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소비 촉진

<보론> 인구보너스 1.0 시대와 인구보너스 2.0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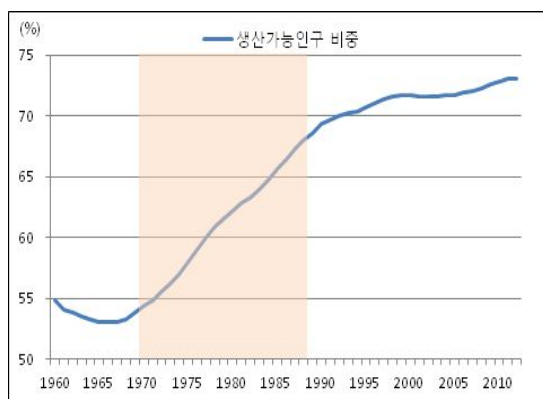
- 인구보너스를 1차 효과와 2차 효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
 - 1차 효과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저축률이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 (일반적 의미의 인구보너스)
 - 2차 효과는 고령층, 여성,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승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
- 본 연구에서는 1차 효과가 지배적인 시기를 '인구보너스 1.0 시대'로, 2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과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시기를 '인구보너스 2.0 시대'로 규정

2) 인구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절대규모가 아니라 총인구 대비 비중임. 생산가능인구수의 최고점은 2016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최고점은 2012년임

○ (인구보너스 향유 : 1966~2012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저점을 기록한 1966년부터 정점에 다다르는 2012년까지 46년간 인구보너스를 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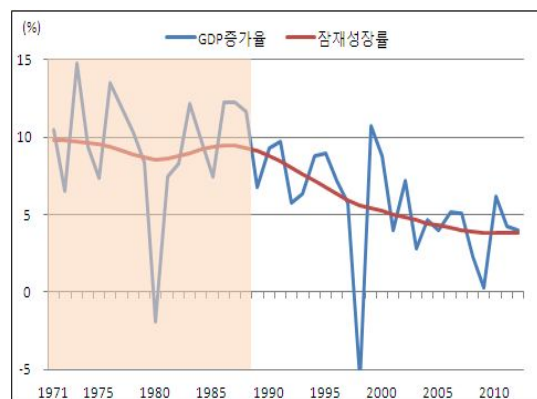
- 특히 베이비부머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던 1970~1989년 인구보너스 효과가 크게 작용
 - 1966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53.0%로 최저점을 기록. 한국전쟁으로 인한 출산률 감소로 1966년에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
 - 한국전쟁 후 태어난 1,739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55~'74년생)³⁾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970년 54.9%에서 1989년 68.6%로 급등.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2년 73.1%로 정점을 기록
 - 총부양비는 1966년 88.7에서 2016년 37.2로 하락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상승하고 총부양비가 하락하면서 잠재성장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
 - 베이비부머가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1970~1989년에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9.2%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잠재성장률도 1990~2000년 6.6%, 2000~2011년 4.1%로 점차 하락

<인구보너스와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 통계청
 주 : 음영은 베이비부머('55~'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시기

<인구보너스와 잠재성장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통계청
 주 : 음영은 베이비부머('55~'74년생)가 생산가능인구로 진입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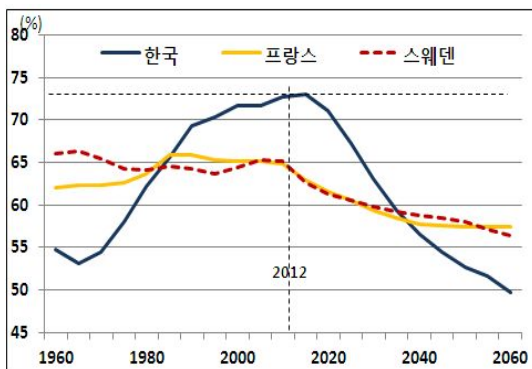
3) 연구자마다 베이비부머의 정의가 다름. '55~'74년생 출생자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나 '64~'67년 일시적으로 주춤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정부(국무총리실, 2011)는 '55~'63년생을 1차 베이비부머, '68~'74년생을 2차 베이비부머로 규정하기도 함. 본 연구는 1960~2060년의 장기추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55~'74년생을 통틀어 베이비부머로 규정. 1990년 인구총조사에서 15~34세에 해당하는 베이비부머는 3,944.5만 명 중 1,738.7만 명(44.1%)에 이룸

3. 인구보너스 소멸

○ 한국의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0년에는 주요국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나, 2060년 최하 수준으로 추락하여 경제 활력이 떨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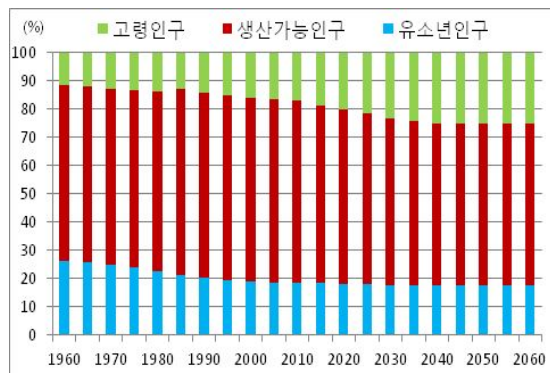
- UN 인구추계⁴⁾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았으나, 2060년에는 최저 수준으로 추락
 -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2.8%에서 2060년 49.7%로 23.1%p나 급락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1.0%에서 40.1%로 29.1%p 급등
 - 이에 따라 인구에 의한 경제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가 37.3에서 101.0로 치솟음
- 반면 인구정책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프랑스와 스웨덴은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면서 경제 활력을 유지
 - 프랑스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2060년 7.1%p 감소(64.8%→57.7%)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8.2%p(16.8%→25.0%) 상승하는데 그침
 - 스웨덴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8.8%p 감소(65.2%→56.4%)하고 고령인구는 8.0%p(18.2%→26.2%) 상승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자료 : UN, 통계청

<프랑스의 인구구조>



자료 :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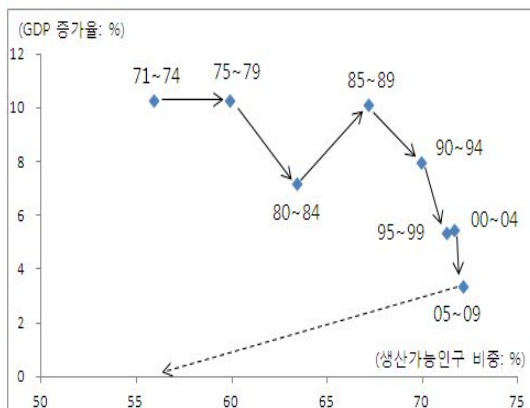
주 : 총인구 중 고령인구(위), 생산가능인구(중), 유소년인구(하) 비중

4) UN(2011),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주요국은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호주를 뜻함

○ (인구보너스 소멸 : 2013년~) 2013년부터 인구보너스가 소멸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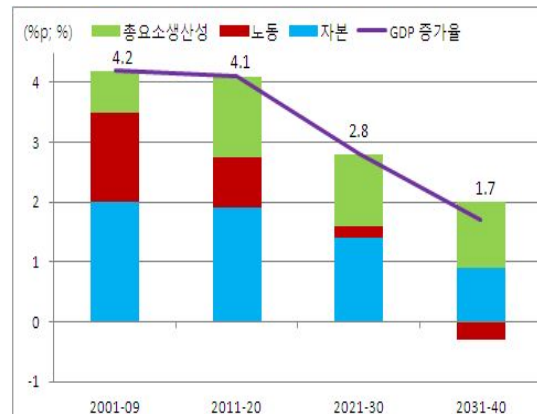
- 출산률 저하로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고령인구로 유출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총부양비는 상승
 -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73.2%에서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기 직전인 2019년에 71.7%로 서서히 하락
 -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로 편입되면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0년 71.1%, 2039년 57.0%로 급격히 하락. 2060년에는 49.7%를 기록
 - 한편 고령인구 비중은 2019년 15.0%에서 2020년 15.7%, 2039년 31.7%까지 치솟고, 2060년에는 40.1%를 기록
-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잠재성장률도 급격히 하락
 - 가파른 고령화는 출산률 저하로 인한 총부양비 감소효과보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총부양비 상승효과를 더욱 확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제약
 -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4%대에서 2030년대에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
 - 자본 기여율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플러스를 유지하는 반면, 노동기여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때문

<실질GDP-생산가능인구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 OECD
주 :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은 성장기여도(%)임.

○ (생산주력세대 고령화)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주력세대가 현재의 40대에서 2028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면서 경제 활력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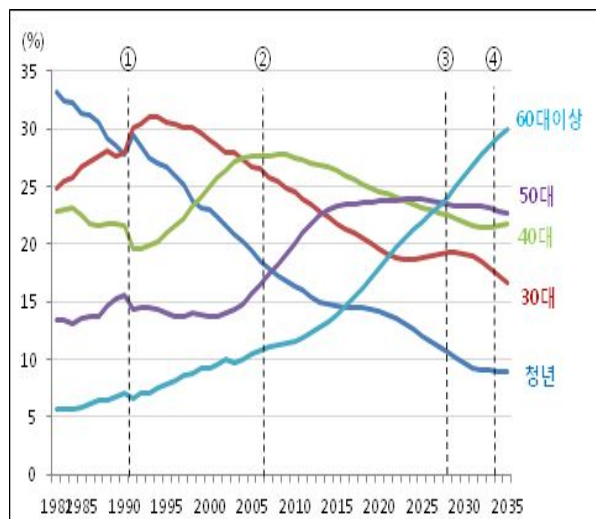
- 가정 : 고용률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소는 불변이고, 성별·연령별 고용률이 2011년 수준으로 2035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 오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률 변화 효과만을 고찰하기 위함
- 베이비부머의 연령 변화에 따라 생산주력세대도 청년층에서 30대(1990), 40대(2004), 50대(2023), 60대 이상(2028)로 순차적으로 변동
 - 청년→30대(1990) : 1990년 취업자 중 30대의 비중은 28.0%로 청년의 27.8%를 넘어섬. (베이비부머 중 1955~1960년생이 30대에 속함)
 - 30대→40대(2004) : 2004년 40대의 비중(27.5%) 30대 비중(27.4%)을 추월 (베이비부머 중 1955~1964년생이 40대)
 - 40대→50대(2023)→60대 이상(2028) : 2023년에 50대(23.9%)가 40대(23.8%)를 앞서고, 2028년에는 베이비부머의 대부분인 1955~1968년생이 60대 이상이 되면서 생산주력계층이 됨(60대 이상 24.1%; 50대 23.5%)
- 고령취업자 비중 상승 속 고용 수급불일치 심화 우려
 - 고령층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음
 - 노동공급측 : 고령층이 취업을 원하면서 노동공급 증가
 - 노동수요측 : 기업이 고임금의 고령층을 기피하면서 노동수요 감소

<2011년 고용률(%)>

연령	합계	남자	여자
15~19	6.8	5.5	8.1
20~24	43.5	37.2	48.2
25~29	69.7	71.6	67.8
30~34	71.0	87.9	53.2
35~39	73.3	91.6	54.1
40~45	78.4	92.2	64.2
46~49	78.4	90.9	65.6
50~54	74.7	88.2	61.2
55~59	67.4	81.7	53.2
60~64	55.1	69.6	41.3
65~	28.9	36.9	21.4
계	59.0	70.5	48.1

자료 : 통계청

<연령별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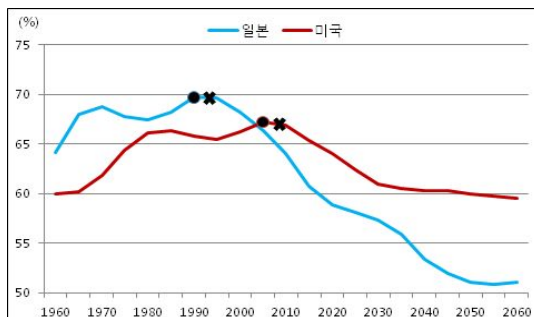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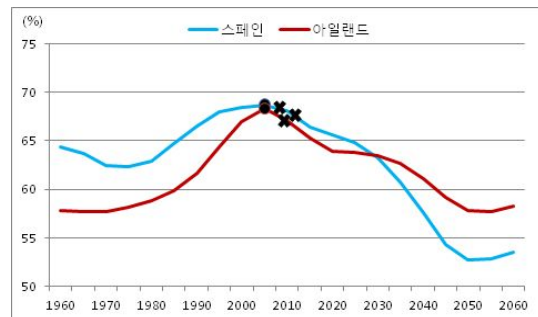
○ (금융위기 가능성 증가) 순저축 계층인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가격도 정점을 기록하고, 그 후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음

- 인구구조 악화로 인한 부동산 수요 감소가 부동산버블 붕괴 및 금융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나, 금융위기의 토양을 제공할 수 있음
- **일본** : 1980년대에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다가, 199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9.7%로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침체 돌입
- **미국** :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2%로 정점에 이르렀고, 그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
- **스페인** :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2008년에 부동산버블이 붕괴하였고, 2012년 다시 은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구제금융 신청
- **아일랜드** :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4%로 최고점에 이른 후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면서 2010년 구제금융 신청
-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기가 위축될 경우, 정부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재정위기 가능성도 높아짐
- 특히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와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재정 악화
- 일본은 1990년 금융위기 당시 GDP 대비 정부부채(%)가 67.0%에 불과하였으나 장기침체가 지속되면서 2011년 229.8%로 급증하였고, 미국도 76.1%(08년)에서 102.9%(11)로 상승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됨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과 금융위기>



자료 : UN, 통계청
 주 : ●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정점을,
 X는 금융위기 시점을 뜻함



자료 : UN
 주 : ●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정점을,
 X는 금융위기 시점을 뜻함

5) IMF자료 기준

Ⅲ. 인구보너스 2.0 시대의 준비 과제

- (인구보너스 2.0 시대) 2012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시기에 즈음하여, 고용율을 높여 인구보너스를 연장시키는 ‘인구보너스 2.0 시대’를 준비할 때임
- (준비 과제) 출산률을 높이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생산가능인구 증가 효과가 나타나므로, 2030년까지의 고용부족 현상을 해결할 대책을 촘촘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우선순위 : 먼저 고용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중기적으로 북한 인력과 외국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하며, 출산장려책은 지금부터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 단기 대책 : 2013년부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하락하는 만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층과 여성, 청년의 고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실업문제와 노동력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
 - 중기 대책 :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인력 활용할 경우,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격차를 줄이고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적정 수준의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모색
 - 장기 대책 : 출산률 제고는 상당한 정부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20년이 지나서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시행하되 장기적 시각으로 추진
 - 고령층 일자리 대책 : 고령인구 및 베이비부머의 상당수는 노후 준비가 미흡하여 취업의사가 상당히 높은 반면, 기업은 고임금의 고령층을 기피
 -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동시에 도입
 -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의 처지와 숙련 정도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 등

- **청년 일자리 대책** : 청년의 '눈높이 미스매치'가 심각하여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구직자의 눈높이를 현실화하는 것과 더불어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
 - 고학력의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성공신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강화.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再起) 지원제도 보완 등
 - 마이스터고 활성화 등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해 과도한 고학력 풍조 개선

- **출산률 제고 및 여성 일자리 대책**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수당 지급 확대 등의 출산 대책을 점차적으로 확대
 - 0~3세 자녀를 위한 공공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아파트 내 부모가 공동 책임제로 운영하는 사설보육시설에 지원금 지급
 -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출산·보육 관련 수당 지급 확대 등

- **외국 인력 및 북한 인력 적정 활용** : 고령인구, 여성, 청년의 고용률 제고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노동부족 현상이 발생할 전망. 적정 수준에서 북한 인력 및 외국 인력을 활용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북한 인력 활용. 남북 격차를 줄임으로써 통일비용을 낮추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기여
 -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사회통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취업지원책을 통해 더불어 사는 여건 조성
 - 외국인 인력의 수요조절 메커니즘 구축 및 외국인 인력의 활용도 제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연계 등

- **재정 준칙 마련** :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준수
 - 출산률 제고 대책과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대책은 상당 규모의 재정을 수반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 추진
 - 이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준칙 마련과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

이준협 연구위원 (2072-6219, sododuk1@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15일	6월 2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58	1.62	0.04%p
	엔/달러	81.19	80.66	77.66	79.43	79.47	0.04¥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629	1.2688	0.0059\$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767	12,574	-193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569	8,824	25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27	3.31	0.04%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65.6	1,151.6	-14.0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58.2	1,889.2	31.0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6월 15일	6월 2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4.00	78.21	-5.79\$
	Dubai	88.80	106.75	104.89	96.66	90.67	-5.99\$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72.23	267.16	-5.07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